

‘삼합에 소고기까지’ 영산포 흥어·한우축제 기대하세요

스물한 번째 최장수 지역 축제 오는 23~25일 개최
숙성흥어, 한우 할인 판매 등 양귀비꽃밭서 남도 미식 대향연
미스터 트롯 장민호, 현숙 등 가수 공연, 볼거리·체험 가득

알싸한 맛이 입안 가득히 퍼지며 막힌 코가 뚫리는 숙성 흥어를 배불리 맛볼 수 있는 먹거리 축제가 5월 전라남도 나주시 영산포에서 열린다.
올해는 폭삭한 흥어, 묵은김치, 찰진 돼지 수육을 곁들인 흥어삼합에 명품 나주 한우를 더한 남도 미식 대향연이 더 풍성하게 펼쳐질 예정이다.
전라남도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5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영산강 둔치체육공원 일원에서 제21회 영산포 흥어·한우축제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나주시 최장수 음식문화 축제인 영산포 흥어축제는 올해부터 영산포 흥어·한우축제로 명칭을 변경했다.

전라남도 최대 축산업 중심지이자 연평균 1만 5천여 한우가 거래되는 영산포 우(牛)시장이 자리한 지역 특성을 살려 한우 상설 할인 판매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600년 전통을 자랑하는 숙성 흥어를 소재로 시식과 흥어 무침 나눔, 50% 할인 판매, 경매, 4행시, 상식퀴즈 등 다양한 부대 행사가 진행된다.
노안 정고집, 다도 참주가를 비롯해 숙성 흥어와 찰떡궁합인 남도 막걸리 10여종을 맛볼 수 있는 전시·시음 부스도 운영해 미식·애주가들의 입맛을 자극한다.
축제 분위기를 한층 띄워줄 초대가수 공연도 기대를 모은다. 미스터트롯 장민호와 최현숙을 비롯해 현진우, 치료



윤병태 나주시장은 “나주 영산포를 넘어 전라도 대표 음식이자 건강에 좋은 보양식인 숙성 흥어와 더불어 명품 나주 한우를 이번 축제를 통해 전국 미식가들에게 선보일 계획”이라며 “꽃양귀비가 만발한 아름다운 영산강에서 가정의 달 5월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보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나주/이명열 기자



곡성 대표 로컬브랜드 “곡성 뚝방마켓”개장 200회 맞아 누적 방문객 46만 명, 참가 셀러 1만 1천 명 달성

곡성군은 대표 문화장터 ‘곡성 뚝방마켓’이 오는 10일 토요일 개장 200회를 맞이하여 특별한 프로그램과 감성 가득한 행사로 꾸며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2016년 처음 문을 연 곡성 뚝방마켓은 ‘예술과 감성, 지역 농산물과 주민 참여’가 어우러진 문화마켓으로, 매주 7~80명의 셀러 참여와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방문객들의 호평을 받으며 총 누적 방문객 461,240명, 참가 셀러 11,485명을 달성하여 지역경제와 관광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었다.
특히, 지역 주민이 주체가 되어 곡성의 주요 거점인 뚝방정원을 주요 관광지와 연결하고 각종 연계사업을 활용하여, 곡성만의 문화클러스터로 곡

성의 새로운 경제·문화 플랫폼으로 주목받고 있다.
뚝방마켓은 이번 200회 개장을 기념하여 브런치 거든과티, 베르사유 코스툼 체험, 버스킹 공연, 플라마켓, 체험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브런치 거든과티는 선착순 100명을 대상으로 뚝방마켓 옆 곡성전에서 진행되며, 참가비는 1인 9,900원으로 뚝방협동조합(☎061-362-2753)으로 신청할 수 있다.
조상래 곡성군수는 “뚝방마켓이 200회를 맞이까지 지역 주민과 상인들의 노력이 있었다”라며 “많은 분들에게서 곡성을 방문해 여유로운 뚝방길을 걷고, 감성 가득한 마켓도 즐겨보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곡성/이정수 기자

담양군, 담양대나무축제 기간 농특산물 판매 ‘성황’ 6천여만 원 매출 기록하며 담양의 맛 선보여

담양군의 농특산물이 5월 황금연휴 동안 관광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담양군(군수 정철원)은 제24회 담양대나무축제에서 운영된 농특산물 판매 부스가 연휴 기간 곳곳에 펼쳐져 6천여만 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눈에 띄는 성과를 거뒀다고 8일 밝혔다. 올해 축제에는 담양을 대표하는 19개 농특산물 생산 업체가 참

여해, 블루베리, 방울토마토, 수박, 버섯, 진통 장류, 약주, 한과, 쌀기 가공품 등 담양만의 건강한 맛을 선보였다.
특히, 올해는 제품 시식 체험 및 페이스 페인팅 재능기부, 실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 등 다양한 방식으로 방문객과의 소통을 확대하면서 단순 판매를 넘어 담양 농특산물의 인지도와 가치를 높



군은 이번 축제를 통해 지역 축제와 연계한 로컬푸드 유통 활성화 가능성을 확인했으며, 저가대 장터 운영과 온라인 연계 판촉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 농산물의 판로를 넓혀갈 계획이다. 담양/이종욱 기자

강진군, 여름철 자연재난 대응 ‘총력체계’ 도입 피해 예방 위해 24시간 비상체계 유지, 관계 기관과 협업체계 구축

강진군이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여름철 자연재난(태풍·호우 등)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종합대책 마련하고 사전 대비와 대응 태세 구축에 돌입했다.
이에 강진군은 지난 2일 강진군청 대회의실에서 강진군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강진원 강진군수) 주관으로 ‘2025년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강진군 지역자율방재단, 8539부대 2대대, 강진경찰서, 강진교육지원청, 강진소방서, 월출산국립공원사무소, 한국전력공사 강진지사, 한국농어촌공사 강진지사, 한국가스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한국전기안전공사 전남남부지사 등 관내 관계기관 관계자가 참석해 협업 및 협조 체계를 구축했다.
이날 회의의 진행에서는 관계기관과 실무 부서별 대응 계획을 발표한 후, 상호 중심의 심도 있는 토론을 벌였다. 특히 재난발생시 비상 대응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각 관계

관과 실무부서 간의 협력을 긴밀히 해 상황별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체계를 구성하기로 했다.
강진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24시간 비상 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해 국지성 극한 호우와 수피해 등이 잦아지는 가운데, 강진군은 선제적 점검과 관계기관 및 지역자율방재단 등 관내 봉사 단체와 주민 중심의 재난 대응으로 피해 최소화해 나사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강진원 강진군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작년 집중 호우로 많은 피해가 발생된 만큼 철저한 사전 대비와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특히 기상이변으로 예측이 어려운 여름철 자연재난은 과할 정도로 전방위적 대응체계를 구축해 선제 대응에 나서야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다”라며 “매년 반복되는 침수 피해와 산사태 등 국지적 재해를 줄이기 위한 사전 조치에 행정력을 집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진/손경설 기자

광양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환경 개선에 박차 실태조사→정책→교육 연계... 청소년 노동권 보장 기반 마련

50%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으며, 바람직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으로는 고용주 처벌강화, 노동환경 개선, 고용주 교육 확대, 권리구제 장치 마련 등을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광양시는 이러한 실태를 반영해 2023년부터 2년간 관내 청소년 2,700여 명을

대상으로 노동인권 교육을 실시해왔다. 올해에도 관내 중·고등학생은 물론,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한 다양한 대상자에게 교육을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
더불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교육기관, 노동기관 등과 협력해 ‘청소년 노동인권 네트워크’를 구축·운영하고, 지역 시민단

체·상권과 협력한 아웃리치 활동도 활발히 전개하는 등 지역사회가 함께 청소년을 보호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도 힘쓸 방침이다.
김종호 광양시 교육청소년과장은 “청소년들이 스스로 권리를 지키고 건강한 노동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청소년과 고용주에 대한 교육을 지속 확대하겠다”며 “청소년이 존중받는 노동환경을 실현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광양/신선호 기자

화순군, 고인돌 오토캠핑장 명랑캠프 성황리 마무리 5월 3일부터 5일까지, 36가족 134명 자연 속 특별한 추억 선사

참가 가족들은 농구왕·다트 게임·종이 비행기 날리기·공룡 달리기·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등 다양한 오락·게임 활동을 통해 가족 간의 화합을 다졌으며, 캠핑 콘서트와 보물찾기를 마지막으로 이날 일정

을 즐겁게 마무리하였다.
특히 캠핑장 인근 세계유산 화순 고인돌 유적지와 어우러진 자연환경에서 진행된 프로그램은 참가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한 참가자는 “아이들과 자연 속에서 이렇게 오붓한 시간을 보내긴 오랜만이다”라며, “프로그램도 알차고, 1박 2일 동안 너무 신나게 캠핑을 즐겼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대부분의 참가자가 높은 만족도를 보인 가운데 “1박 2일이 너무 짧아 아쉽다”, “다음에도 꼭 다시 참여하고 싶다”라는 후기를 남기기도 했다. 화순/김종환 기자